

협회소식 / 116

건축계소식 / 117

신기술 신자재 / 120

협회소식 KIRA news

2001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작품접수 마감

81작품 접수
계획부문은 9월 10일 접수

2001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부문 작품 접수가 지난 8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실시된 결과 총 81작품이 응모해 지난해 62작품에 비해 약 30% 늘어났다. 주거 부문 19작품, 비주거부문 62작품. 심사는 8월 28일부터 약 2주간 실시된다. 계획부문 작품접수는 9월 10일에 한다. (표 3 참조)

경기도건축사회,
광주지역건축사회 업무개시

지난 7월 24일부터

경기도건축사회는 광주지역 건축사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성남지역건축사회

에서 분리하여 지난 7월 24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12-12 소재에 광주지역건축사회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전화: 031-762-2204

팩스: 031-762-2205

2001건축사자격시험
시험장소 공고

9월 2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2001건축사자격시험이 서울과 부산, 그리고 광주에서 9월 2일 동시에 실시된다. 배치계획(오전)과 건축설계(오후)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총 6개 시험장으로 나뉘어 실시되는 이번 시험 장소는 다음과 같다. 협회 홈페이지(kira.or.kr) 참조

- ▷제1시험장(서울) / 광양중 · 고등학교 (00001~01475)
- ▷제2시험장(서울) / 광진중학교 (01476~02250)
- ▷제3시험장(서울) / 자양중학교 (02251~04075)
- ▷제4시험장(서울) / 광장중학교 (04076~05000, 30002~30094)
- ▷부산시험장 / 경남공업고등학교 (10001~11498)
- ▷광주시험장 / 송원중 · 여자중학교 (20001~21133)



건축사법개정안 공포

법률 제6503호(01. 08. 14)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를 기다리던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4일 법률 제6503호로 공포돼 공포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공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종전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경력을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일부터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안 제14조).
- ▷ 종전에는 건축분야의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부칙 제2항).
- ▷ 종전에는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을 강화함(안 제15조 및 부칙 제1항).
- ▷ 건축사의 업무수행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공사감리 등 기술발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정부와 국민들

이 경쟁력있는 건축사를 선정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토록 함(안 제19조의 2).

- ▷ 건축물의 부실설계, 부실감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건축사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 3).
- ▷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축시험회 설립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함(안 제38조).

디자인교육 2001전

9월 7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 '디자인 교육 2001전'은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주관으로 디자인 교육에 관한 일반전시로 8개 학교(계원대, 국민대, 서울건축학교, 서울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 KIST)가 선정되어 0907-1007까지 한 달간 디자인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1997년 김수근 문화재단의 예술 교육 사업으로 시작한 서울건축학교(sa)는 동시대의 건축가, 예술가, 지식인들이 모여 학문과 예술의 분야를 넘어 시대의 첨예한 이론들이 논의되며, 건축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삶을 성찰하고 그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장소로써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가들이 성장하는 실험의 장이다.

서울건축학교에서는 국내외 건축관련 학과 대학재학생, 대학원생 및 예비건축가를 대상으로 1년에 2회의 정기워크숍과 2회의 계절워크숍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담론의 제시를 목표로 하는 세미나와 강좌 및 연구자료의 전시, 출판, 이벤트를 통하여 새로운 도시건축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01 가을 정기 워크숍 스튜디오 별 주

제에 따라 스튜디오 마스터 자율로 운영하며 5-6명의 참가자로 구성된다.

진행 프로그램은 연간 계획으로 작성하여 미리 공고하며 스튜디오 상호간의 진행은 코디네이터에 의하여 조정된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스튜디오 외에 공개 강좌 및 세미나, sa기행, 전시 등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참가

국내외 건축과 및 관련학과 재학생, 졸업생, 설계사무소 경력인 대상
참가신청서/인터넷 홈페이지
(www.saschool.or.kr)
접수마감/ 09. 23일까지

일정

2001 1005-1130 (8주)

스튜디오

김광수 스튜디오(연세대 건축과, 예일대대학원, 팀반건축) 자치성의 극대화
김영준 스튜디오(서울대, 동대학원, aa school, 김영준 도시건축) 도시의 밀도와 복합기능

민현식 스튜디오(서울대, aa school, 기오현) housing
승효상 스튜디오(서울대, 동대학원, 비엔나 공과대학, 이로재) urban void
오섬훈 스튜디오(서울대, aa school, 공간) 경계의 인식

정기용 스튜디오(서울대 응용미술학과, 동대학원, 파리건축6대학, 파리8대학도시계획과, 기용건축) 반복과 차아건축, 문학, 철학, 음악
조성룡+김현 스튜디오(인하대, 동대학원, 조성룡도시건축/한양대, 미시건대 학원, 예대건축) 영화. 도시

최욱 스튜디오(홍익대 건축과, 베니스건축대학, 스튜디오 최욱) mutations
한만원 스튜디오(홍익대 건축과, 파리라빌레트건축대학, 한도시건축) morphological study & decomposition of urban form

강좌/건축가세미나 sa friday

10월~11월중

전시회

0825-0901 여름워크숍 '楊口探險'
(서울건축학교 전시실)

0908-0915 여름워크숍 '楊口探險'
(양구군청 전시실)

0907-1007 디자인 교육 2001전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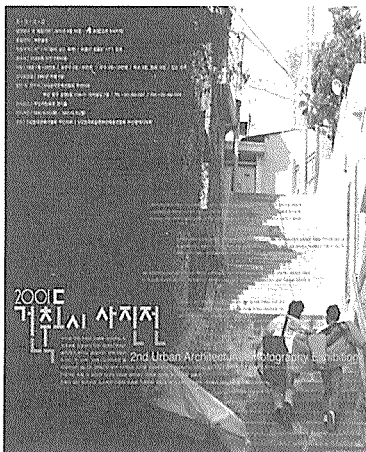
2001 건축 · 도시사진전

10월 11일부터 부산시민회관에서

부산의 문화개혁과 타예술 분야간의 상호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부산 예술제2001」축제의 일환으로 건축가 협회에서는 두 번째 건축 · 도시사진전을 개최한다.

응모요강

- 참가접수 및 제출기한: 2001년 8월 16일~9월 28일(오후 5시까지)
- 출품자격: 제한없음
- 작품규격: 11" x 14" (컬라 또는 흑백)
제출시 샘플(5x7) 동봉
- 접수비: 10,000원 (1인 3작 이내)
- 시상: 대상 1점 50만원
최우수 2점 30만원
우수 3점 20만원
특선 5점, 장려 10점



입선다수

- 심사발표일: 2001년 10월 8일
- 접수 및 문의처
부산 동구 초량3동 1169-11 아키 빌딩 7층
(사)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TEL (051)469-7637,
FAX (051)466-1642

- 전시장소: 부산시민회관 전시홀
- 전시기간: 2001. 10. 11. (목)~
2001. 10. 15. (월)

KIBEX 2001- 국제건축박람회

리모델링 특별관 개설

건축관련 전문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KIBEX 2001- 국제건축박람회(행사 기간: 2001. 12. 5~9 / 서울무역전시장)에는 건설 전공정에 걸친 다양한 전문품목이 출품되고 현장시연과 세미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금번 행사에는 주요 제품들이 커튼월/외장판, 건설장비판, 보안/BS관 등 공동관 형태로 구성되며, 특히 전시장 3번 홀에는 리모델링 특별관이 개설된다. 이 리모델링 특별관에는 건축자재의 최대 구매자이기도한 리모델링 관련 컨설팅사, 전문시공사 및 전문설계회사들이 대규모로 출품할 예정이어서 건축자재 출품업체들 입장에서는 키벡스의 방문객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특별관 출품업체들과 직접 구매상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리모델링 특별관의 출품품목은 리모델링 관련 설계회사, 시공회사, 컨설팅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별관 출품업체들은 키벡스를 방문한 건축주 및 건물관리팀들에게 세미나 및 상담을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와 다양한



솔루션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업체별로 전시기간동안 특별관내에서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를 통해 전시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이해와 참여를 극대화 시킬 뿐만 아니라 출품업체들에게는 세미나가 전시 및 상담등과 연계함으로써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특별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세미나 외에도 키벡스 행사기간동안 전체 12회의 기술 세미나 중 2회를 리모델링 분야에 배정한 상태여서, 현재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리모델링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관심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리모델링 특별관을 위해 현재 키벡스 사무국에서는 리모델링 전문업체들의 주요 고객인 건축주(호텔, 콘도미니엄, 교육시설, 공공건물, 할인점, 백화점, 은행, 보험회사, 레저업 등) 및 주요 빌딩의 건물 관리조직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련 회사의 임원 및 부서장들을 특별히 초청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키벡스 사무국은 키벡스2001에 출품한 건축자재 제조업체들의 기술과 제품들을 리모델링 전문업체들에게 특별히 소개할 수 있는 상담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KIBEX 2001- 국제건축박람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ibex.com을 방문하거나, 박람회 사무국 (Tel: 02-708-4080/ E-mail: info@kibex.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간안내

건축기술 실무이야기
차세대 빌딩의 조건
일본 속의 한국근대사 현장

◇ 건축기술 실무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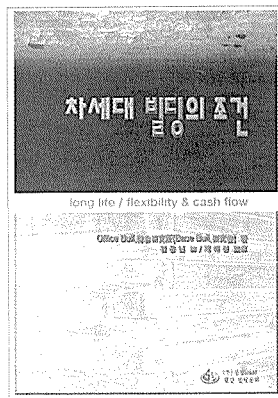
오늘날 건설산업은 과거의 단순시공 위주에서 분야별 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단계별 종합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효율극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나아가 미래의 건설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설계, 구조, 시공 등 건설산업 각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의 원동력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축구조 지식의 학습과 적용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년간 현장실무기술의 응용 및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기본사항을 요소별로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였다. 이 책은 건축기술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체계적인 현장실무교육의 필수자료로서 최근에 개발하거나 실제로 적용한 신기술, 신공법 사례를 수록하여 최근의 건설기술에 대한 정보공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삼성물산건설부문 지음/407쪽/2만4천원/
공간예술사 발행(02-737-1020)

◇ 차세대 빌딩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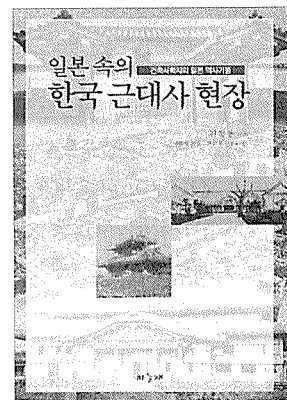
이 책은 지난 50년간 일본의 오피스 빌딩이 갖고있던 가치와 효율성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내일의 빌딩이 갖추어야할 조건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있다. 총 50여개의 에세이 형식의 글은 글로벌사회, 생태사회, 성숙사회, 고도정보화사회 등 사회변화에 따른 빌딩경영과 건축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에 대한 내용으로 오피스빌딩 총합연구회 19인이 집필했으며, 김응년이 옮겼다. 이 책은 제1장 Long Life빌딩의 조건, 제2장 환경의 세기와 오피스 건축, 제3장 투자평가에 강한 빌딩, 제4장 임차인을 만족시키는 빌딩, 제5장 차세대 빌딩을 실현하는 프로세스, 제6장 차세대 빌딩으로의 초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래사회의 주요한 변화의 요소를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킨다.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시스템의 수정이 요구된다. △지구환경이 요청하는 롱 라이프 빌딩 △성숙한 사회의 저성장 경제는 빌딩 선별의 시대를 부른다. △(스피드 업)한 기술혁신에 대응 △정보네트워크 사회의 요청 등을 꼽았다. 향후 다가올 사회·경제 시스템이나 기술변화를 검증하고, 이것이 오피스빌딩에 무엇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피스 빌딩의 설계에서도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Office Build. 총합연구소 지음/김응년 옮김/
226쪽/1만2천원/
(주)정성D&M 발행(02-3272-9977)

◇ 일본 속의 한국근대사 현장

건축사학자 김정동 교수의 일본 역사기행 <일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이 출간됐다. 이 책은 일본에 있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독자들에게 신선한 역사적 충격을 안겨주었던 저자의 또 하나의 역작으로 숨겨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꼼꼼한 사실 확인과 풍부한 사진자료로 우리 역사 읽기의 새 장을 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정동 교수의 7년여의 작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 책에는 우리와 관련된 일본의 건축물, 도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각 편의 글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무대가 된다. 주인공은 물론 한국인이지만 그곳에 수없이 많은 일본인들이 겹쳐진다. 이 책은 제1부 식민지 지식인의 초상, 제2부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현장, 제3부 거리에서 읽는 근대사로 엮어졌다.



김정동 지음/357쪽/1만2천원/도서출판 하늘
재 발행(02-2644-0656)